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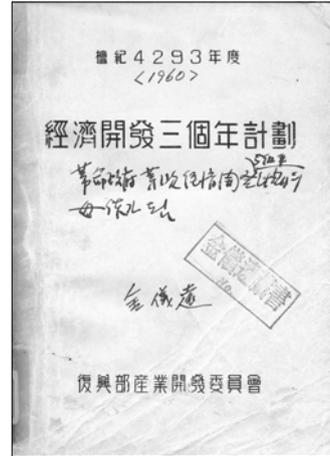
12 經濟開發三個年計劃 경제개발3개년계획

1960년 /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 767면 / 10.10-15 부98경 1960

이 계획은 부흥부(復興部)에 설치된 산업개발위원회(産業開發委員會,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에서 1960년에 발표한 계획이다. 부흥부란 6·25전쟁 휴전 후 경제복구를 주관한 부처인데 주업무는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었다. 산업개발위원회(EDC) 위원장은 부흥부장관이고 부위원장은 주원(朱源) 전 건설부장관이 맡고 있었다. 이 계획은 당초 자유당 정부의 5개년계획으로 짜여졌으나 투자재원 준비가 어렵다 하여 3개년 계획으로 수정하였다.

이 계획은 1958년을 기준연도, 1959년을 거취연도로 정하고 1960년~1962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작연도인 1960년의 4·19 학생혁명으로 실시가 중단되고 말았다. 4·19 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이 계획을 버리고 당면 문제인 민생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이른바 국토개발사업(國土開發事業)을 선행함으로써 노임살포를 통한 사회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듬해인 1961년 5·16 혁명으로 집권한 군사 정부는 민주당의 국토개발사업을 계승함과 동시에 과거 자유당 정부가 수립한 경제개발3개년계획을 보완·수정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모체로 삼았다.

『經濟開發三個年計劃』은 첩판에 굵은 등사판으로 총 767면의 본문과 별책으로 구성



된 부록이 있었으나 이것은 망실되었다. 『經濟開發三個年計劃』에는 공공부문이 유별나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부위원장인 주원 박사는 일본의 유명한 大原經濟研究所(오하라 경제연구소)에서 도시경제를 전공한 분이신데 자유당 때 국토계획학회를 창설하였고 6·25 당시 대한건설협회 이사장을 지냈다. 당시 대한건설협회 이사장은 교통부장관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1950년대~1960년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겸하기도 했다. 또한 주박사는 이때 『國土政策(국토정책)의 이론과 운용』이란 저서를 내기도 했기 때문에 공공분야에 대한 이해가 유별난 분이었고 후일 건설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주원 부위원장의 보좌역이자 공공부문 담당자는 일본의 제3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토대학 토목과를 나온 김여택이었다. 김여택은 5·16 후 농림부에서 농지국장으로 영입하는 것을 거절하고 건설부 동력과장으로 부임함으로써 자기 전공인 댐 건설에 전념했다.